

섬유공업의 보험대책



구 자 철

(럭키화재해상보험(주)위험관리부장)

1. 국내 기업의 보험 정책

보험은 흔히 “경제 생활의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각출함으로써 사고를 당한 자가 이를 통하여 재산적 급부를 받는 사회 경제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으나, 정의를 빌어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보험은 거의 유일한 위험 전가 방안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성장 또는 외형 위주의 경영 정책 관행상 기업은 자신의 경영 활동 전반에 나타나는 사소한 Risk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의 보험 정책은 사실 적

극적인 손해 보전 의지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하에서는 보험 계약 체결의 여부, 다시 말하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진위만 증시될 뿐 어떤 위험을, 얼마의 가치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느냐 하는 구조적 방법론적 명제는 간과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한 기업의 보험 정책은 주로 Top Management의 의식, 경영 상태 등 기업의 고유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험 회사가 자신의 일선 영업조직이나 서비스망을 통해 그들 고객에 대한 적절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도 그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경영 환경은 급격한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과거와는 자못 다르다. 민주화, 개방화, 국제화로 집약되는 현재의 사회적 요인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양태의 Risk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민권 의식이나 소비자 권리 의식의 뚜렷한 확산 추세로 인하여 과거에는 가끔 무시되거나 경시되던 Risk들(예를 들면, 배상책임위험 같은 것들)이 질적, 양적으로 변모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하이테

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예를 들면, 컴퓨터, 정보 관련 위험 등)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기업 특히, 섬유공업과 관련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이나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위험을 도출(risk identification)하고 그 위험의 재무적 처리(risk financing)방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바람직한 보험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섬유 공업의 위험 요소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뉴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 보험 정책 수립의 관건이라는 의미로도 유추가 가능할 듯하다. 이를 테면 면섬유 제조 과정에서 개표·혼타·소면 등 일련의 제조 과정에는 어떠한 위험들이 있고, 제품의 수송·판매 등에 관련된 위험들은 어떤 것인지, 경영 전반에 걸친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가. 위험의 발견(Risk Identification)

필자의 견해로는 어떠한 Tool을 사용하든간에 전체 섬유 공업에 걸쳐 두루 알맞은 보험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는 논리는 다소 무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섬유 공업이라고 해서 다른 제조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런 위험이 유독 확률적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학 공업이나 섬유 공업의 화재에 있어서 가연성 가스의 누출이나 아니면 분진에 의한 화재나 하는 원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들로 인한 사고는 공히 화재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이 위험은 결국 화재 보험으로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Hazard(사고의 원인)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Peril(사고의 형태)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섬유 공업은 그 성장 배경이나 업종의 특성상 다른 분야와 구별할 수 있는 몇몇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기업이 안고 있는 일반적 위험을 임의로 분류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은 상호 의존성이 있으므로 보험 정책 역시 상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중 보험으로 전가가 가능한 위험들을 선별하여 이를 섬유 공업의 제조 공정이나 경영 활동 전반에 적용하여 <표2>와 같이 재분류해 보았다.

편의상 단계별로 대표적인 위험만을 예시하였으나, 위험간의 상

註1) 위 <표1>중 자산 손실, 배상 책임, 기업 유지에 관련된 위험들만이 보험을 통해 재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표 1> 위험의 분류

1. 자산 손실 (Property Damage)	화재, 낙뢰, 폭발, 홍수, 폭풍
2. 배상 책임 (Liability)	고객, 종업원, 일반대중의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배상 책임 또는 이로 인한 법률적 방어비용
3. 기업 휴지 (Business Interruption)	자산 손실 등으로 인한 생산 장애로 발생하는 수익의 감소
4. 경영 오류 (Error of Management)	졸렬한 기획, 통제, 스태프의 선택
5. 유실(遺失) (Wastage)	졸렬한 재고 통제, 포장, 감가, 부식, 주식 투자자의 상실
6. 기술적 변화 (Technological Change)	기술 개발, 기술 도입의 실패 신제품에 의한 기존 제품의 수요 감소
7. 사회적 변화 (Social Change)	신제품에 대한 급작스러운 수요 창출. 노동력의 변동, 공해 산업에 여론 고조
8.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기업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신법안의 입법 인플레이션, 환율,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
9. 환경 위험 (Environmental Risk)	기후, 자원의 고갈

관 관계에 따라 재해의 진행과 정상 여러 위험이 복합되거나, 연속되어 나타남으로써 재해의 규모를 심각히 증가시키기도 한다.

나. 위험의 평가(Risk Evaluation)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확인된 위험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 즉, 위험의 처리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위험을 평가할 때는 각 위험의 심도(severity)와 빈도(Frequency)를 고려해야 한다.

다. 위험의 처리(Risk Control)

평가된 위험의 심도나 빈도에 따라 이 위험을 회피 또는 제거(avoidance or elimination)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reduction)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회피 또는 제거,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재무적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라. 위험의 재무적 처리(Risk Financing)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들에 대하여 이를 보유(retention)할 것인지 아니면 전가(transfer)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보유하는 방법으로는 기금확보(funding), 자가보험(self-insurance) 등이 있고, 전가 방법으로는 보험 계약이 대표적이다.

3. 섬유 공업의 보험 대책

앞의 <표1>, <표2>에서 확인된 위험들을 모두 보험에 전가한다는 계획은 비경제적일 수가 있다. 따라서 보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1) 법률상 강제 조항은 아닌가
- 2)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인가
- 3) Cost는 어느 정도인가
- 4)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5)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의 보험 수요 또한 자산 손해를 담보하는 재

(표 2) 제조 과정상 위험 분류(면방적)

행위 & 요인		위험의 발견	전가 위험	관련 보험 상품
원면공급(원산지) 부재료 도입		원면 공급의 중단, 계약 파기(조업 장애)	이익 상실	간접 기업휴지 보험, 적하 보험(수입)
원면운송		운송 지연, 운송 화물 유 실, 손실	자산 손실	운송 보험, 동산종합보험
방직공정	개포, 혼타, 소면, 정소면, 연조, 조방, 정방, 권사, 합사, 연사 → 완성품(실)	화재, 폭발, 기계의 물리 적 파손, 조업 중단,	자산 손실	화재 보험, 기계 보험,
	직포공정(제직, 정포)	제3자(전학 납품업자)의 상해, 종업원 상해, 파업, 조업 중단	배상 책임 이익 상실	영업배상 책임 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 책 임 보험, 화재 보험 BI, 기계 이익 보험
가공공정	모소, 탈호, 정현, 표백, 실케트 가공, 염색, 특수가공, 텐터링, 가호, 건조			
완성 판매	검사, 포장, 저장, 출하	제품 하자, 운송 사고	자산 손실, 배상 책임	적하 보험(수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폐수 처리 지원 설비	전력 공급, 폐수 처리, 용수공급	조업 장애, 오염 배상	배상 책임, 이익 상실	간접 기업휴지
구내 시설 복지 시설	주차장, 식당, 휴게실, 기숙사의 운영, 컴퓨터실, 연구실	주차 차량 사고, 가스 폭 발, 식중독, 종업원 상해, 전산 장비 파손	배상 책임, 자산 손실	자배책,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생산물 배상책임 보 험, 사용자 배상, 자동차 보험, 전자기기 보험
환경적 요인	인접 공장, 주변 도로, 항로	외부로부터의 연소 확대, 항공기 추락, 홍수, 태풍, 낙뢰	자산 손실	화재보험(특약)
사회적 요인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악의적 행위, 테러	화재(방화), 상해	자산 상실, 배상 책임	화재보험(특약), 영업배상
공장 증축 라인 확장	건설 공사, 기계 조립	건설 공사 및 기계 조립에 수반되는 화재, 폭발, 도 난, 조립상 결함으로 인한 물적 손해 배상 책임	자산 손실, 배상 책임, 이익 상실	조립 보험, 건설공사보험, ALOP

물 보험 위주에서, 최근에는 배상 책임이나 이익 상실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는 구매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화재 보험에 국한하여 계약상의 주요 개념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며, 여타의 보험 종목에 관해서는 보상 내용을 간단히 예시한 <표3>의 내용으로써 같음하려 한다.

가. 화재 보험 설계

화재 사례를 볼 때 섬유 공업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특징은 유독 전

손(全損)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업종의 특성상 원재료가 이연성(易燃性)의 가연물이고, 공정중에 분진이 많이 발생되므로 화재 발생의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도 있으나, 서두에서 말한 바 있듯이 한국적인 특수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간 소방 설비나 방화구획 조치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고 또한 단위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내화도가 낮은 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발화시 연소 확대의 가능

성이 크다는 데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섬유 공업의 보험 정책은 전손(全損)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다 적극적인 손해 보전 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에 발생한 7방적 화재의 경우, 추정 손해액 5백78억원의 약90%에 해당하는 5백30억원이 건물과 기계에 대한 손실이었던 것으로 비추어 보험가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및 기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설정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약관의 선택(국문/영문)

우리 나라의 화재 보험 증권은 국문 약관외에 미국식과 영국식의 영문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문 약관으로는 주로 영국식의 F.O.C.(Foreign)Policy Form이 사용된다. 국문 약관과는 근본적인 취지는 같으나, 내용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다만 영문 약관은 국내의 모든 목적물에 똑같이 평균 요율을 적용하므로 편리한 점이 있으나, 동일 구내의 위험이 계약당 3백만불을 초과할 경우로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요율은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하여 사용한다. 계약의 편의상 주로 대형 공장의 계약에 이용된다.

2) 공제금액의 설정(영문약관)

위험의 평가 과정에서 심도와 빈도를 고려하여 면책 금액의 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간의 손실 이력이나 위험의 평가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손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면 공제금액을 낮추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Cost 즉, 보험료와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3)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일부보험으로 인한 비례보상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손해 사정시의 보험가액 평가는 기업 회계상 자산 평가 방법과는 상이하므로, 이 차이로 인해 일부 보험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건물, 기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은 보험회사의 권고에 따르게

(표 3) 주요 보험 상품과 보상 내용

구분	보험 상품	보상 내용
자산 손해 (Property Damage)	화재 보험	동산·부동산에 대한 화재·낙뢰로 입은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담보.
	동산 종합 보험	동산의 휴대·운송 중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폭발, 풍수해 기타 잡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
	기계 보험	설치·가동중인 기계(설비) 및 장치가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직전의 가동 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르는 수리·대체·교체 내용 보상
	적하 보험	운송(해상·육상·항공) 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
	전자 기기 보험	전자, 통신, 의료 설비의 소유·사용·관리 중 우연한 사고로 손상받은 기기의 수리, 교체 비용 보상
	운송 보험	육상 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화물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
배상 책임 (Liability)	영업 배상 책임 보험(註2) ○ 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기업, 개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
	○ 생산물 특별 약관	생산물이나 서비스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 판매업자, 용역업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 책임
	○ 주차장 배상책임 특약	자신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차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주차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담보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보험(註3) ○ 근로자 배상책임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할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을 담보
	○ 사용자 배상책임	산재법 대상 업체만 가입대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의 손해배상금 보상(산재 또는 근재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註4)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가스 사용자 등이 가스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	
이익보험 (Loss of Profit)	○ 화재 보험 (기업 휴지특약, BI) ○ 기계 이익 보험 (MLOP) ○ Advance Loss of Profit ALOP	화재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로 인해 생긴 기업 휴지에 따른 간접 손해 보상 기계 보험에 담보하는 손해로 인해 생긴 기업휴지에 따른 간접 손해 보상 조립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보상
종합보험 (All Risk)	○ 조립 보험(EAR) ○ 건설 공사(CAK)	기계, 공장 등의 조립에 관한 모든 우연한 사고로 발생되는 물적, 손해와 법적 배상 책임 담보 건설 공사와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물적 손해 및 법적 책임 담보

나 손해 사정시와 같은 방법으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가입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증감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건물이나 기계를 신축, 재조달할 경우 실제의 보험금 수령액과 재조달가의 차이로 인하여 보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조달가 특별 약관을 첨부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재조달가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단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전을 해줌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특별 약관의 선택

다음은 흔히 이용되는 특별약관의 예시로서 기업의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국문 약관 기준)

가) 재고가액 통지 특약: 재고가액 변동이 많은 재고 동산의 비례 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부, 할증 요율은 없다.

註2)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보통약관에 특별 약관을 첨부하는 계약 형태로서 보통 약관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하다.

註3) 섬유 공업은 특히 여 종업원의 비율이 높으므로 화재 등의 비상 사태에 따른 피난시의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크며, 최근 사용자가 배상할 법적 손해 배상금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액을 훨씬 상회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의 효용이 커진다.

註4) 가스 사고 배상 책임은 의무적 가입 대상 종목이나 대인 및 대물 보상 한도액 이상으로 담보받고자 할 경우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추가로 담보받을 수 있다.

나) 풍수재 위험 담보 특약: 풍수재로 인한 손해 보상

다) 구내 폭발 위험 담보 특약: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생긴 손해 보상

라) 전기 위험 담보 특약: 변압기 등의 전기기기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하여 생긴 화재 손해 담보

마) 확장 위험 담보 특약(I, II):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보상

바) 잔존물 제거 비용 특약: 손해 발생후 잔존물 제거 비용 보상. 할증 요율 없다.

사) 기업휴지 손해 부담 특약: 기업휴지로 인한 손실 보상

아) 재조달가 특약: 신품으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상

건물이나 기계 등의 경과 년수가 상당히 지난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복구비에 현저히 미달하게 되므로 이때 재조달가 특약을 첨부한다면 적극적인 손해 보전책이 될 수 있다.(단, 국문 약관의 경우 감가율 50%를 초과하지 않는 목적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섬유 공업의 원재료, 완제품 등은 물질의 특성상 소실시 잔해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재고가액 통지 특약을 첨부하고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시 재고 측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맺는 말

이상으로 화재 보험을 위주로 하여 보험 정책상의 몇가지 주의점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각 기업

의 보험 정책에 직접 응용하는데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서두에서 밝힌 바 있지만 기업의 보험 정책 수립은 각 기업의 경영 정책이나 고유의 특성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의 특성에 부응하는 보험 설계를 위해서는 공장 전반의 위험을 컨트롤하는 안전 관리·정비·생산 기술 Staff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인 보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보험 관리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최근의 손해 보험 회사들은 위험관리 전문 조직을 구축하고 이들로 하여금 보험 설계 서비스, 방재 안전 진단 서비스, 보험 교육 등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으로서 처리하거나 보유하기 어려운 거대한 위험은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어떠한 보험 상품도 기업의 손실을 완벽하게 복구해주지는 못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재해이든간에 인명이나 재산 손실에 수반하여, 기업의 이미지나 신용의 훼손, 기업의 신뢰도 하락, 시장 상실 등 보험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2차적 재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투자, 조직의 보강이나 교육, 시설에 대한 과감한 배려가 가장 확실한 Cost절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